

<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<주일말씀 주제>를 인식시켜 주고, <잠언>을 전해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한 절, 한 절 잠언을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주>를 빼고 <자기들>끼리 하면, ‘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’ 이
함께하지 않으신다. 항상 <삼위>와 <주>와 함께하기다. 그렇지
않으면, 성령님은 절대로 ‘상황’ 과 ‘여건’ 을 통해서 ‘문
제’ 가 일어나게 하시고, 그로 인해 깨닫게 하신다.
2. <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>에서도 일을 맡겼는데 사명자를 빼
고 ‘자기들끼리’ 하면,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되는
일이 없듯이, <섭리사의 모든 일들>도 그러하다.
3. <성령과 주>와 함께 모으고 헤치지 않으면, ‘사탄’ 이 껴서 행
하게 된다. <삼위>와 <그가 세상에 보낸 주>와 행하기다. 이를
깨닫고 행하여라.
4. 항상 <하나님이 보낸 주>가 ‘머리’ 이시다. <머리> 없이 행하
면 <육체>끼리 행하게 되니,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.

5. <하나님과 성령님>은 항상 ‘머리이신 주’와 함께 행하신다. 성경에도 사울 왕이 ‘사명자인 사무엘 선지자’를 빼고 진행하니,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.

6. 그러므로 항상 <주>와 함께 ‘하나님’께 나아가기다. <주>와 같이 ‘섭리사의 각종 일들’을 행하기다.

7. <신광야 때>는 ‘모세’가 머리가 되어 기도하면, ‘여호수아’가 나가서 싸웠다. <가나안 복지 때>는 ‘여호수아’가 머리가 되어 ‘그 군대들’과 함께 나가서 싸웠다.

지금은 <신광야 시대>가 아니다. 우리는 <가나안 복지 역사를 이룬 자들>로서 ‘휴거되고 부활되어 사는 때’, ‘삼위와 주를 모시고 섬기며 같이 사는 때’를 살아가고 있다. 모두 <때>와 <위치>를 깨닫고 행하여라.

8. <주>와 함께 모으고 헤치고, <주>와 함께 행하기다.

9. <지체>끼리만 행하면, 역시 ‘육신의 주관권’을 면하지 못한다.

10. <주>는 ‘영’이시니, <주의 영이 계신 곳>에는 ‘육신의 자유함’이 있느니라. <주의 영이 없는 곳>에는 ‘자유함’이 없나니, ‘흑암의 주관권’이라 그러하니라.

11. 삼위는 항상 <주>를 ‘다리, 중보자’로 삼고 행하신다.

12. <깊이 기도하는 자>일수록 ‘주와 일체 된 삶을 사는 자’ 다.
13. <주의 이름>으로 ‘하나님’ 께 나아가라. 그래야, 사탄이 자기를 주관하지 못한다.
14. <주>는 ‘세상’ 을 이겼노라. ‘사탄’ 을 이겼노라.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‘생명’ 을 구원하게 하셨노라.